



주간 통일정세

2013-4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양 물놀이장·승마클럽 시찰(10/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물놀이장과 승마클럽을 잇달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에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이 9개월 만에 완공된 평양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며 준공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 수조, 한증탕, 샤워실, 편의봉사시설을 살펴본 뒤에는 "구석구석 흠잡을 데가 없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미림승마구락부 내 인공산에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정각과 천막휴식장을 세운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인공 연못 주변에 몽금포 모래를 깔고 인공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을 것을 지시했음.
- **노동신문, 1면 사설로 "누가 뭐라해도 선군사상" 강조(10/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1면에 게재한 '우리 혁명의 지도적 지침인 선군혁명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군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선군혁명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전체 당원과 군 장병, 인민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선군절'(8월 25일)에 발표한 담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를 철저히 학습할 것을 주문함.
- **北 김정은 부부, 방북 러시아 관현악단 공연 관람(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65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 중인 21세기관현악단의 파벨 오브산니코브 단장과 나탈리아 이와노브나 세묘노바 행정지배인을 만나 양국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연활동을 치하했으며, 제1위원장은 또 러시아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관현악단 성원들과 함께 북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 공연도 지켜봄.



- **北 225국 통일전선부로 편입…총련 영향력 저하됐(10/17, 아사히(朝日)신문)**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지도기관인 북한의 내각 225국(구 대외연락부)이 최근 대남공작부서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로 편입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에서는 과거 자금력이 있는 재일총련과 관계를 맺으려는 기관이 많아 당 대외연락부가 총련을 지도했으나 총련의 자금력 저하에 따라 대외연락부의 북한내 영향력도 줄어들어 수년전에 225국으로 격하됐다고 전함.

- **北노동신문 "사회주의 한길로…제재에 물러서지 않아"(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김일성 주석이 일제시대에 결성했다는 '트·스'(타도제국주의동맹)의 87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고수와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1면에 게재한 사설 "트·스가 열어놓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이 세상 끝까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이것이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좌우명이며 영원한 승리의 항로"라고 주장함.
 - 또한 "지금 미제를 비롯한 역사의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의 도수를 높이며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우리 인민은 그 누가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는 앞길이 험난하다고 하여 선택한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 인민이 아니다"고 밝힘.

- **北 고위지도부, 김일성大 교육자주택 방문(10/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고위간부가 19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주택) 가정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은 김일성대 교육자살림집에 입주한 김상옥, 리창국, 리광영 등 교원과 연구사들의 가정을 방문함.



■ 김정은동향

- 10/13,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10.13,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백계룡(당중앙위 부장), 박명순(당중앙위 부부장), 안정수(경공업상) 동행
- 10/13, 김정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김은섭(80회)·김창원(70회)'에게 생일상 전달(10.13, 중통·중방)
- 10/14,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 및 미림승마구락부 시찰(10.14,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마원춘(당중앙위 부부장) 동행
- 10/16, 김정은·리설주, 10.15 동평양대극장에서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공연 관람(10.16, 중통·중방)
 - 김기남(黨 비서), 인민내무군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창작가 등 함께 관람
- 10/16, 김정은, 10.15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노동당만세' 관람(10.16, 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기남(黨 비서),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 성원들, 평양시 인민들 등 함께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저작(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발표 10주년 관련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나가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며 '철저한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 선동(10.15, 중통·노동신문/과학기술발전의 길에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이 있다)
- 北, 10.18 리보익(김정은 고조모) 사망 54돌 즈음 만경대 묘에 화환(10.18, 중통)
 - 김기남, 양형섭, 문경덕, 최부일, 김용진(내각부총리) 등
- 김영남·박봉주·최룡해 등 黨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 10.19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입주(김상욱 연구소 소장 등) 가정(김정은이 보낸 액정TV 등 비치) 방문(10.19, 중통·중·평방)

나. 경제

● 北, 경제특구 개발 위한 민간단체 출범(종합)(10/1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주목된다며 연합뉴스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조직돼 자기 활동을 시작했다"며 "협회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단체들이 조선의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들에 대해 잘 알게 하고 그 진출을 협력해주는 민간급 단체"라고 밝힘.



- 또한 조선경제개발협회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관심을 가진 "여러 나라 경제계와 기업계, 학계의 광범위한 인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협회는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투자 토론회, 상담회, 전시회, 경제정보 교류, 자문, 정부 위임에 따른 투자 합의, 투자자들의 기업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전함.

● **北,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위원회로 승격(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했음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에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밝혔으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 **북한 道마다 경제개발구 설치 추진(10/17, 신화통신)**

- 북한이 도(道)마다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발로 보도했음.
- 통신은 16일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린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개발 평양국제심포지엄'을 소개, 조선경제개발협회 책임자 윤영석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백개의 외국투자기업이 기계, 전자, 경공업, 수산, 제약, 건축자재, 식품가공 등의 생산 분야는 물론 통신, 운수, 은행, 요식 등 서비스업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와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北 '김정은식 경제개발 시스템' 속속 구축...성과는(10/17,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17일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령은 국가경제개발총국의 격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높이고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北 노동신문 "바다 양식에 투자 늘려야"(10/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다 양식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독려함.
- 신문은 '균중적인 사업으로 해야 할 바다농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시마 등의 바다 양식은 큰 품을 들이지 않고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며 "바다가 양식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계획대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당의 높은 뜻대로 계획화 사업과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 바다가 양식 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생산을



계통적(체계적)으로 장성시켜야(늘려야) 한다"고 강조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4호(10.16),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10.16, 중통·중방)
- 조선경제개발협회(리철석 부회장) 주최 "특수경제지대 개발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 10.16-17, 양강도 국제호텔에서 진행(10.17, 중통·중방)
 - 토론회에는 조선경제개발협회 일꾼들·김일성종합대학 등 여러 단위 교수·경제전문가들과 캐나다·미국·베트남·인도·중국 등 경제학 교수·전문가들 참가
 - 토론회는 특수경제지대 개발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고 실천적 경험과 지식을 체득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음.

다. 군사

- 北,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13년 만에 개최(10/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며 "공훈을 세운 전군의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들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 간부가 대회 참가자들을 직접 맞이했으며 대회는 김정은 체제 들어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0년 중대 정치지도원대회 개최 이후 13년 만에 열림.

■ 기타 (대내 군사)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개최 예고 및 대회 참가자들의 10.17 평양 도착과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등 出迎 환영(10.17, 중통·중방)
 - 인민군대의 세포인 중대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 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강화하는 데서 공훈을 세운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대회에 참가함.
 -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10.17 만수대언덕과 인민무력부 김일성·김정일父子 동상에 헌화(10.17, 중통·중방)

라. 사회·문화

- 北 대외용 잡지, 점자책 전문 출판사 소개 눈길(10/14, 연합뉴스; 금수강산)
 - 북한 월간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출판사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있



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는 입수한 북한의 대외 홍보용 잡지 '금수강산'에서 윤원빈 광명출판사 부주필이 '나의 인생을 두고'라는 제목으로 쓴 수기가 실렸다고 소개함.

● **혁명가무 줄인 北예술단 中공연서 호평(10/14, 중국신문사)**

- 북한 문화외교의 주력군인 국가급 예술단이 최근 중국 공연에서 과거와 다른 레퍼토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고 중국 언론이 14일 보도함.
-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2013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 광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지난 10~12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3차례 공연한 북한 국립민족예술단이 혁명가무 위주의 기존 레퍼토리에 변화를 줘 관객들의 호응을 얻음.

● **北, 아동·구강 병원 개원... '인민사랑의 선물' 선전(10/1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평양 문수지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건설중이던 옥류 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이 완공돼 13일 나란히 개원한 소식을 14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전함.
- 통신은 두 병원이 김 제1위원장이 인민들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라며 현대식 설비를 갖춘 이번 병원 건설로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 잘 받게 됐다고 선전함.

● **北 지방마다 버섯공장 건설 붐... "식생활 개선 의도"(10/15,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에서 "버섯을 많이 생산해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나선사에서 버섯공장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라며 이미 기본 건축공사가 끝나고 울타리와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중앙TV는 전날에는 양강도의 간부와 근로자들이 혜산 버섯공장을 빠른 속도로 건설 중이라며 버섯공장 건설에 도(道) 혁명전적지관리국, 도 건설건재관리국, 도 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 식료일용공업관리국, 혜산청년광산 등이 동원됐다고 밝힘.

● **북한, 올봄 탈북자 자백운동 전개(10/16, 마이니치(毎日)신문)**

- 북한은 올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탈북자 귀환 및 범죄고백을 촉구하는 '자백운동'을 벌였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6일 베이징발 보도를 연합뉴스에서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자체 입수한 조선노동당 보고서를 토대로 김 위원장이 "적의 반공화국 정찰·모략책동을 철저히 때려부수라"고 지시해 자백운동이 전개됐다고 전함.



- '체육강국'다짐한 北, 스포츠 부정행위 잇단 징계(10/16, 연합뉴스; 노동신문)

 - '체육강국' 건설을 목표로 체육 발전에 힘을 쏟는 북한이 최근 스포츠 부정행위에 엄격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15일 '전국 도(道) 대항 체육경기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성황리에 열렸으며 각 도(시)별 종합 순위를 공개했으며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서는 평양시와 나선시(특별시)를 제외한 10개의 도 및 특별시에서 올라온 팀이 농구, 배구, 탁구 등 10개 종목의 경기에서 시합을 벌였다고 전함.

- 동아시아게임, 2019년부터 청소년대회로 변경(10/16, 조선중앙통신)

 - 동아시아 국가들의 스포츠 국제종합대회인 동아시아경기대회가 '동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로 바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텐진에서 열린 동아시아경기협회 이사회에서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동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로 개칭하는 안건이 통과됨.

- 北, 김병훈 前문예총위원장 등 5명 애국열사릉 안치(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병훈 전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중앙위원장 등의 유해가 16일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애국열사릉에서 김 전 중앙위원장과 설명순 전 인민군 협주단장, 조창덕 전 내각 부총리, 최성수 전 인민내무군 장성, 김병팔 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등 '열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진행됐다고 전함.

- 北,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준공식(10/1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18일 새로 건설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준공식을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중앙방송은 중앙버섯연구소가 평양의 대동강 기슭에 건설됐으며 "연건축면적이 6천100여㎡인 버섯연구소는 첨단수준의 각종 연구실과 실험실, 버섯재배장 등 버섯연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힘.
 -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문경덕 노동당 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준공 연설을 함.

- 北, '소년절' 전국아동문학작품상 신설(10/20, 연합뉴스; 아동문학)

 - 북한이 올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전국 규모의 아동문학작품 공모 행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가 20일 입수한 북한 월간지 '아동문학'(2013년 8월호)에 따르면 지



난 6월 평양에서 제1회 '전국 아동문학작품 현상 모집' 시상모임이 있었으며 윤두근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장이 모임에서 당선자들에게 상장과 시상품을 수여했고 참가자들은 좋은 작품을 창작할 결의를 다졌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여자축구팀, 10.13 '2013년 아시아 19살 미만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중국 팀에 1:0 승리(10.13,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홍콩서 북한 선전포스터 전시회 열려(10/14, 연합뉴스)**
 - 지난 1일부터 홍콩 타이쿠 플레이스에서 시작된 '비밀 장막 뒤의 예술-북한포스터전'은 북한 미술품 수집가인 홍콩인 에릭 웡(40)씨가 자신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라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함.
 - 전시에는 북한 작가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 원본 36점이 출품됐으며 선군 정치 찬양과 미국 비난 등 선동적인 내용부터 전통 인사 예법과 민속 놀이를 장려하는 계몽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선전 문구를 담고 있음.
- **북한 연결 중국 단둥 새 통상구 건설 순항(10/14, 중국신문사)**
 - 중국이 자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추진 중인 새 통상구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4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단둥~신의주)와 곧바로 연결되는 새 통상구는 차량편으로 대교를 건너 북·중을 오가는 인원과 화물에 대한 출입국, 통관, 검역 등을 담당함.
- **중국 훈춘에 북한산 수산물 가공시설 증가세(10/14, 연변일보)**
 - 중국의 두만강 유역 대북교역 거점인 지린성 훈춘(琿春)시에 최근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14일 연변일보 등 현지 매체들이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훈춘홍하오(洪昊)식품공업무역유한회사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지난 10일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 문을 열었으며 공장은 2만㎡의 부지에 1만 2천㎡ 규모로 지어졌으며 앞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가공·판매해 연간 매출이 2억 위안(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北中박람회서 유엔 제재 北기업 전시관 철거(10/14, 미국의소리(VOA))**

 -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2013 북중경제무역문화관광 박람회'에서 북한의 한 기업체 전시관이 유엔 제재대상이라는 이유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방송은 해당 기업이 '조선련하기계합영회사'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으며 랴오닝성 당국자들은 중국 외교부의 요청으로 이 업체의 전시 중지를 요구했고, 북한 측은 지난 11일 오후 이에 응했다고 전함.

- **북·중박람회, 16억불 상당 무역·투자의향서 체결(10/15, 중국신문사)**

 -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올해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 관광박람회'에서 총 93건, 16억 달러(약 1조 7천억원) 상당의 무역·투자의향서(LOI)가 체결됐다고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5일 전함.
 - 신문은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20여개국 기업과 1만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10~14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35건, 5억1천만 달러(5천 400억 원) 상당의 투자의향서와 67건, 10억 9천만 달러(1조 1천 600억 원) 상당의 무역거래의향서가 체결됐다고 보도함.

- **케네스 배 모친 "아들 3번 만나...건강 나아진 듯"(10/15,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 씨의 어머니 배명희(68) 씨가 15일 이번 북한 방문 중 이들을 세 차례 만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배 씨는 이날 가족성명을 통해 평양에 체류한 5일간 이들을 세 차례 만날 수 있었으며 아들의 건강이 2개월 전보단 나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고 말함.

- **북한 청년친선대표단 방중...산업현장 등 시찰(10/16, 동북신문망(東北新聞網))**

 - 북한의 청년친선대표단 100명이 중국을 방문해 산업현장과 대학 등에 대한 시찰에 나섰다라고 중국 언론 동북신문망(東北新聞網)이 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용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청년친선대표단 일행 100명이 15일 랴오닝성을 방문했으며 대표단은 전날 평양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北京)에 도착했으며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알려지지 않음.

- **北 신문, 미일동맹 강화 비난 "세계평화에 위협"(10/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최근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며 이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양국이 합의



한 내용을 언급하며 "미일 동맹 강화는 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위험한 침략적 군사동맹 강화"라고 비난하며, 이번 미·일 합의가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 실현에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상전을 등에 업고 아시아 재침략 야망을 이루려는 일본 사이의 군사적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 **북러 수교 65주년 교류행사 활발...양국 친선 '과시'(10/16,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65주년을 맞아 각종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친선관계를 과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은 양국 외교관계 수립일(10월12일)을 앞두고 지난 7일 러시아에 친선대표단을 보낸 데 이어 지난 8~9일에는 하바롭스크에서 북한 영화와 도서, 미술작품 등을 소개하는 전람회를 개최했으며 앞서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까지 평양외국어대학에서 '평양시 중학생 러시아어 경연'을 열었음.
- 또한 지난달 러시아 극동 하산역과 북한 나진항 간 54km의 철도 구간이 개통됐고, 러시아가 장기임대한 나진항 3호 부두 개보수 공사도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조선중앙통신은 하산-나진 철도 개통을 '북러관계 발전과 공동번영 이정표'로 평가하고 양국 간 대규모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함.

● **北, WHO 동남아 사무소장에 명예의학박사학위(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6일 방북 중인 짚리 플리안방창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짚리 소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명예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가 북한의 원격의료서비스 체계 수립과 심장혈관외과, 줄기세포 등 임상·기초과학 부문을 발전시켜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함.

● **캐나다NGO, 北에 우유용 콩 220t 지원(10/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민간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우유용 콩 220t을 지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이 단체는 최근 평안남도과 강원도 지역 고아원과 탁아소 등에 지원할 우유용 콩 220t을 북한에 보냈으며, 이번 주 지원물품 분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할 예정이라고 전함.

● **오라스콤, 대북사업 때문에 캐나다 진출 좌절(10/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의 대주주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북



한과의 관계 때문에 캐나다 진출 계획이 좌절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오라스콤은 캐나다에서 이동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광섬유 투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내주 미국·영국에서 공청회(10/18, 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다음 주 미국과 영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조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힘.
- 3인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는 워싱턴과 런던에서 탈북자 등 경험자 증언을 통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며, 23일부터 시작되는 런던의 공청회에는 증인으로 탈북자들 외에도 여러 비정부기구(NGO) 전문가와 영국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임.

● 北, 외국건설사시업과 개성에 '첨단기술특구' 개발 착수(10/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외국 기업들과 합작해 개성을 첨단기술에 특화된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건설사시업이 '개성첨단기술개발구' 건설을 위해 합작하는 방안에 대해 북한의 유관기관들과 협의했으며 곧 이행에 착수한다고 밝힘.

● 북한, 중국 자동차 업계에 잇단 '구애'(10/18, 동남쾌보(東南快報))

- 18일 동남쾌보(東南快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순수 국산 브랜드인 화타이(華泰)자동차는 지난 8월 북한 나선경제특구에서 열린 국제상품전시회에 참가해 조선나선삼대성합영회사와 자동차 조립 협력의 향서를 체결함.
- 의향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화타이자동차 측에 SUV와 승용차를 합쳐 총 1천 대의 자동차 구매 주문을 냄.

● 중국 국가부주석, 북한 청년친선대표단 접견(10/19, 신화통신)

-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이 19일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청년친선대표단을 접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리 부주석은 베이징(北京)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용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청년친선대표단 일행을 만났으며 "중국과 북한은 절친한 이웃 나라이며, 청년들은 양국 친선 관계의 계승자이자 건설자"라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은 "대화·평화를 운운하며 뒤에서는 핵전쟁연습소동을 벌이고 있다(‘케리’ 국방장관, 對北 불가침조약 체결의사 발언↔한미일, 해상훈련)"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고 '現 한반도정세 미국 책임' 주장(10.14, 중통·노동신문/평화파괴자의 정체는 여실히 드러났다)
- '北-中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65차 회의' 결정서, 10.14 평양에서 조인 및 김용철(전력공업성 부상)↔ '서인표'(中 국가전력망공사 총경리) 서명(10.14, 중통·평방)
 - 중국 대표단(단장 : '서인표'), 10.14 귀국(10.14, 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공개·확인된 北핵시설 15개, 대부분 영변에 위치(10/14, 연합뉴스)
 - 현재까지 공개되거나 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은 평안북도 영변의 원자로 2기와 원자력 발전소 3기 등 총 15개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영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3년 8월까지 공개되거나 확인된 북한 핵시설 현황을 밝힘.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신문 "하태경 의원에 전달 괴소포는 민심의 경고"(10/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사무실에 최근 협박성 소포가 배달된 사건에 대해 남북간 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라고 주장함.
 - 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북남대결을 피하며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증오의 대상이며 그런 자들은 누구이든 우리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北대남기구 "美항모 서해진입은 핵선제공격 시도"(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16일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에 대해 "노골적인 핵선제공격 시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 항공모함이 동해와 남해상 훈련에 참가하고 '최대열점 지역'인 서해까지 진입한 것



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그들이 떠드는 '불가침'이니 '비핵화'니 하는 것이 한갓 위선이고 기만이며 저들의 북침 기도를 가리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유신 선포일 맞아 "南서 유신독재 부활" 비난(10/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유신체제 선포 41주년인 17일 한국에서 과거의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비난함.
- 신문은 '민주화를 가로막는 유신독재체제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글에서 유신체제 선포와 이후의 정치 탄압을 거론하며 "미국은 오늘 남조선에서 그 저주스러운 악몽의 세월이 현실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조평통, 남재준 국정원장 원색 비난(10/17,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7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대결과 북한에 대한 모략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남 국정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 북한 관련 보고내용을 문제 삼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북남관계 파국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을 모면하려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대로 남재준을 제거하고 제명을 다산 괴뢰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남 국정원장을 "박정희 유신정권의 퇴물", "악명높은 대결 광신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남 국정원장 탓에 남북관계가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함.

● 北 선전매체, 박대통령 풍자 영상 게재(10/18,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TV)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가 박근혜 대통령을 '유신스타일'이라고 조롱한 풍자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우리민족끼리TV가 18일 올린 '난 유신을 사랑해(비그ㅎ 지음)'라는 제목의 1분35초짜리 동영상에는 '5·16 쿠데타', '김대중 납치사건', '인혁당 사건'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의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와 사진, 영상이 이어지는 배경화면 위로 박 대통령을 화자로 상정한 '풍자시'가 등장함.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대변인(10.14), 우리 대통령의 해외 정상외교(10.6-13, APEC · ASEAN+3 정상회의) 對北 발언(北 주민들 생활 · 핵문제 등) 신랄히 비난 및 이번 순방을 통해 "동족대결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하였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왜곡 폄하 담화 발표(10.14, 중방 · 평방 · 중통)



-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東北亞 평화협력구상' 피력 (10.10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서도 "반공화국 국제공조 청탁"이라고 비난 공세(10.14, 중통·노동신문·평방/반공화국 대결공조에 환장한 구걸병자)
- 【중통 논평】 통일부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즉각 중단' 등 對北 촉구 '정부 입장'에 대해 "대결격화를 노린 또 하나의 도발행위"라고 재차 비난(10.14, 중통)
- 통일부의 '北 최고 존엄·체제 모독(김정은 정치는 공적쌓기,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 비난 및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아예 파국으로 몰아가자는 것"이라고 공세(10.14, 중방/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극악한 망발)
- 【중통사 논평】 韓美 안보협의회의에서 연설한 국방부장관의 발언(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 등) 관련 "제법 배심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맞춤형 억제 전략에 의한 핵선제타격이 초래할 것은 저들의 머리 우에 날벼락을 불러오는 참혹한 결말뿐이다"고 위협(10.15, 중통/날벼락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배심)
- 【조선평화옹호조선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10.16)】 美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서해 진입(10.12)에 대해 "노골적인 핵선제공격 시도"라고 비난하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10.16, 중통·중방)
- '핵항공모함의 조선서해 투입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題下로도 '조지 워싱턴'호 서해 진입은 "우리(北)에 대한 노골적인 핵공갈이고 북침 핵선제 타격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비난(10.16, 평방)
-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對北 발언(핵포기, 단호한 대응 등)에 대해 "외세와 反공화국 공조를 강화하여 '핵포기' 야망을 실현하고 동족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반역적 녀두리"라고 지속 비난(10.16, 중통·중방·노동신문/사대매국, 북침전쟁 행각의 치마바람)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46호(10.17),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춘 보고(10.8 김정은, 3년 내 무력통일 공언 등)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신랄히 비난 및 "국정원 해체" 주장(10.17, 중통·평방)
- 【중통사 논평】 대통령 동남아 순방中 北核발언(국력을 핵개발에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관련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의 핵을 말살하려는 민족배신자의 녀두리, 정치적 근시안의 무지의 발로'라고 실명거론 지속 비난(10.18, 중통/민족의 재보도 가릴 줄 모르는 정치적 근시안)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6자회담국에 "완화국면' 기회잡아야"재강조>(10/15,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계속 각방이 마땅히 6자회담 틀에서 반도 비핵화 방안을 연구하고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안정의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 또한 대변인은 "각방이 완화 국면이라는 일종의 기회를 잡아서 접촉과 대화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완화하는 한편 상호신뢰를 강화해 6자회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이산가족 상봉 연기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냉각기라고 여기는 한국 측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

- <IAEA"북핵 검증활동 언제든 가능">(10/16,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13일 방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1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핵 비확산 문제를 논의했음.
 - 이 자리에서 아마노 총장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당사국 간에 합의가 있으면 IAEA가 언제든 북한에 대한 검증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윤 장관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음.

- <美전문가 "北 붕괴시 중국이 영변 핵시설 접수 가능성">(10/17, 연합뉴스)
 -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16일 워싱턴D.C 토론회에서 "영변 지역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불과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북핵 시설이 위치한 영변지역을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베넷 연구원은 "중국은 미군이 북한 핵을 통제할 상황에서 자신들과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길 희망한다"며 "미군이 영변에 진주하기 전에 미리 해당지역을 장악해 핵 시설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게 중국의 전략"이라고 소개했음.
 - 한편, 그는 독일의 통일대비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붕괴된 이후의 대처비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평화적 통일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해커 "北 재가동한 원자로서 폐연료봉 재처리 가능성">(10/18, 연합뉴스)
 -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영변 핵시설을 탐방한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최근 핵과학자회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재가동을 시작한 영변 5mw급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 연료봉 8천개를 재처리해 핵무기용 플루토늄 10~12kg을 추출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북한은 지난 4월 5mw급 가스흑연감속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8월 하순부터 실제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이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통해 드러났음.
 - 해커 박사는 "현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북한이 8천개의 사용후 연료봉을 이용해 이 원자로를 가동하고 이를 냉각시켜 향후 3년간 10~1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것"이라고 우려했음.

나. 미·북 관계

- <北 대남기구 "미항모 서해진입은 핵선제공격 시도">(10/16,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6일 미국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서해진입에 대해 "노골적인 핵선제공격 시도"라고 비난했음.
 -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위원회 명의의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미 항공모함이 동해와 남해상 훈련에 참가하고 '최대열점 지역'인 서해까지 진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국무부 "북한 국제의무 지켜야 평화조약 논의">(10/1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평화조약을 맺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먼저 국제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음.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앞서 신선희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무부 "케네스 배 가족 정기접촉...전화회의의도">(10/18,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중인 케네스 배씨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전화회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방문한 배씨 어머니 측으로부터 방북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배씨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키 대변인은 이어 "(배씨 어머니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난 15



일에도 가족과 통화했고 16일에는 전화회의(컨퍼런스 콜)도 했다"고 설명했음.

다. 중·북 관계

● <“북한 연결 중국 단둥 새 통상구 건설 순항”>(10/14, 연합뉴스)

-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4일 중국이 자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에 추진 중인 새 통상구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단둥~신의주)와 곧바로 연결되는 새 통상구는 중국의 '국가 12·5(12차 5개년·2011~2015년) 통상구 발전 계획'의 중요사업으로, 1일 최대 통관능력은 차량 2만대, 인원 5만 명으로 설계돼 앞으로 중·북 무역량의 60%를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 통상구 안에는 국경검문소, 세관, 검역시설, 출입국 관리시설을 비롯해 업무용 빌딩, 호텔, 쇼핑센터, 주상복합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고 함.

● <중국, 대북 수출금지 900개 품목 첫 공개>(10/17, 연합뉴스)

-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달 23일 중국 당국이 '민군 겸용물자와 기술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관한 공고'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음.
- 중국 당국이 대량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900여 개 품목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 정부가 대북 금수품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공개된 수출금지 품목에는 원자료와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중수와 중수소 생산설비, 핵 폭발장치, 미사일 운반 시스템 그리고 원심분리기용 섬유와 벨트 등이 포함돼 있음.

라. 일·북 관계

● <“한일 납북자 50여명, 평양서 특별 감시받아”>(10/16, 연합뉴스)

- 마쓰모토 교코로 추정되는 일본인 여성 한 명과 한국인 50여명 등 납북자들이 현재 평양에서 특별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음.
- 통신은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마쓰모토 교코로 추정되는 일본인과 50여명의 한국인을 김정은의 지시로 한 데 소환해 평양에서 특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마쓰모토 씨는 29세이던 지난 1977년 돗토리 현 요나고시의 자택을 나간 뒤 행방불명됐으며, 일본정부는 지난 2006년 마쓰모토씨를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음.



마. 기 타

- <파나마, 北청천강호 선원기소, 석방 여부 곧 결정>(10/19, 연합뉴스)
 - 파나마 검찰은 18일(현지시간) 구금중인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등 35명을 기소할지 아니면 석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달 초에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음.
 - 청천강호는 지난 7월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중 설탕 밑에 숨겨 놓은 미 그 21 전투기 2대(1950년대 구 소련산), 같은 기종 전투기의 엔진 12기,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실탄 등 미신고 물품이 파나마 당국에 적발돼 억류됐음.
 - 파나마 당국에 따르면, 청천강호는 북한에 돌려보내지지만, 선장, 선원 등 35명은 모두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2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 국방장관 "美MD편입 않을 것...한국형MD구축 강조">(10/16, 교도통신)
 - 김관진 국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독자적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달 초순 한국을 방문한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회견에서 "(한·미 양국의 MD는)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한 이후, 한국 언론에서 한국이 SM3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것임.
 - 김 장관은 미국 MD에 참가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인데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며 한국은 저도고방어형인 한국형 MD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최고 외교안보사령탑, 北문제 '상시 컨트롤'나선다>(10/11, 국민일보)
 - 10일 정부소식통은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최고위급 정책담당자인 양제츠 국무위원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전략대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중이며, 오는 11월쯤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전략대화'란 두 나라 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공동 목표 설정을 위한 대화채널로, 두 인사는 이를 통해 북핵 해법 등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본격 협의는 물론 양국 최고위급 인사 간 상시 전략대화를 이어



가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최고위급 전략대회는 한·중 양국이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심화 발전됐음을 보여주며, 이와 더불어 양국 정부는 차관보급 또는 국장급이 참여하는 '2+2'(외교·국방)회의, 국책연구소 간 전략대화도 추진 중이라고 함.

다. 한·일 관계

- <韓 외교장관 "韓日 정상회담 환경 성숙되지 않았다">(10/15, 교도통신)
 - 윤병세 외교장관은 14일 국회 답변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일본의 성실한 대처가 부족해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해 개최에 신중한 의향을 보였음.
 - 한편, 역사문제와는 별개로 경제 교류 등을 진행할 방침을 밝혀 "일본과 안정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 이어,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부당성을 호소한 경우에는 "한국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과학적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을 보였음.
- <日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 韓中 배려>(10/18, 아사히신문)
 -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지난 8월 15일에 이어 17일 추계예대제에서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
 - 그러나 17일 한국 외교부는 조태영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보내 "야스쿠니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보낸 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음.
 -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 역시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지금 다시 한 번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 미·중 관계

- <中, "미국의 인권법치 보고서, 반박할 가치도 없어">(10/16, 인민망)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인권, 법치분야에 진전이 없다는 미국 측 보고서에 대해, "미국 의회·행정부처 중국위원회가 매년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만하는 것으로 반박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 또한 화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시종일관 법에 의거해 국민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법치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라고 말했다.
- <中, 美부채협상 타결 환영... "미국과 세계에 도움">(10/17,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로 미국이 유관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한 것은 미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화 대변인은 이어 "중미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하는 것은 양국관계 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호존중과 상호 이익·공영의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일본서 美日합동훈련...'오스프리'수송기 첫 투입>(10/16,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6일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는 일본 시가현 다카시마시 아이바노연습장에서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도입한 가운데 공동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음.
- 통신은, 일본 내에서 열린 미·일 합동 훈련에 오스프리의 투입을 처음이며, 이는 오스프리 기체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일본은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열도 등의 방위를 강화하려고 자위대에 오스프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일본, 센카쿠 경비 강화 위해 대형 순시선 배치>(10/13, 연합뉴스)

- 홍콩 명보 등은 13일 일본 매체를 인용해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경비를 위해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3천100t급 오키나와호를 오키나와현 나하기지에 새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현재 센카쿠 경비를 맡은 일본 제1해상보안부에는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순시선이 류큐호 밖에 없어 오키나와호의 도입을 추진한 것임.
- 그러나 명보는 중국 해경 동중국해 분국에는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배수량 3천980t 해경 2350호와 중국 최대 해경선인 5천800t급 해경 2506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여전히 일본의 순시선 규모가 중국 해경 순시선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지난달 '일본 접근' 중국 폭격기, 기뢰투하 훈련>(10/13, 연합뉴스)

- 13일 중국 해군 홈페이지는 동해함대 소속 H-6 항공기 편대가 지난달 17일 기지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11발의 실제 기뢰를 투하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음.
- 훈련에 참가한 폭격기 중 한 대는 지난달 9일 일본 오키나와 본도와 미야코지마 사이의 공해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으며, 일본은 이를 찍어 언론에 공개한 바 있음.
- 중국 해군이 일본에 접근한 적이 있는 폭격기의 훈련 참가를 공개한 것은 중국군이 필요시 미야코 해협 등 일본의 주요 해상 통로에 항공 전력을 활용, 신속히 기뢰를 부설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대일 무력시위



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판단됨.

- <中, 日각료·의원 야스쿠니 참배 성토...日대사 초치>(10/18, 연합뉴스)
 - 중국은 18일 일본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과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대해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곳"이라며 이날 오전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기테라 마사토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음.
- <중국 해군, 내달초까지 서태평양 훈련>(10/19, 연합뉴스)
 - 신경보(新京報)는 19일, 중국 해군은 18일부터 내달 초까지 서태평양에서 원양 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음.
 - 훈련에는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의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 전력의 참가하며, 참가 전력의 홍군과 청군으로 나뉘어 실전에 가까운 자유 공방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됨.
 -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은 '해양 강국' 구호를 내세우면서 해군 활동 범위를 눈에 띄게 원양으로 넓히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잦은 서태평양 원양 훈련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 상대국인 일본을 향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짙다고 분석됨.

사. 일·러 관계

- <“日·러, 러시아 극동서 농업 공동생산”>(10/15, 연합뉴스)
 - 15일 NHK에 따르면, 올 4월 일·러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따라 현재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서 양국 농업 생산자가 대두, 메밀 등을 공동 재배중이라고 밝혔음.
 - NHK는 14일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와 홋카이도 은행 간부 등 12명이 러시아 현지를 방문, 350ha의 경작지를 시찰했다고 전했다.
 - 한편,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일·러 교류촉진민관연락회의' 첫 회의를 개최, 러시아에서 추진될 에너지 및 극동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관 정보 공유에 나설 계획이라고 함.

아. 기 타

- <“日방위성, 스텔스기 추적 이동형 레이더 개발 착수”>(10/13, 연합뉴스)
 - 도쿄신문은 13일, 일본 방위성이 내년부터 스텔스기를 탐지·추적할 수 있는 신형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다고 보도했음.
 -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의 개발과 양산화를 서두르는데 대응해 일본의 방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함.
 -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와 함께 레이더 개발과 병행, 포착된 스텔스기가 일본 영토와 영해 내를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레이더 정보를 토대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사격 관제 시스



템 연구에도 착수한다고 함.

- <“日, 독도·센카쿠 영유권 주장 홍보 동영상 제작”>(10/13,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3일,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는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 곧 공개할 예정이며,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홍보에 나선다고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현재 외무성 사이트를 통한 영유권 홍보 효과가 작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만간 영유권 문제에 관한 대외 홍보 전용 사이트도 개설,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등 11개국 언어로 일본 입장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함.
 - 또한,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 영토) 홍보 동영상도 추가하는 등 내년 3월까지 12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함.

- <“러 극동 일본 연결 가스관 건설않을 것”>(가스프롬)>(10/14,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가스프롬 부사장은 14일 게재된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동안 일본으로 가스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했지만 어업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검토가 중단됐다"고 설명했음.
 - 그러나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스관을 건설하려는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음.
 - 한편, 메드베데프 부사장은 일본과 함께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건설해 2018년부터 가동할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공장에 필요한 가스 공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 <“박근혜대통령 "동북아 에너지협력 위한 현장조약 마련해야”>(10/16, 연합뉴스)
 - 박근혜대통령은 16일 대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총회(WEC)'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모색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현장조약과 같은 통일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했음.
 -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미지역과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와 가스 자원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에너지 인프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또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은 에너지 산업을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발전시키고 창조형 에너지경제로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 단념”(10/16, 연합뉴스)
 - 요미우리 신문은 16일 복수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에서 올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음.
 - 2008년 이후 매년 열려온 한·중·일 정상회담은 올해에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때가 안됐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회담이 무산된 바 있음.
 - 이는 센카쿠열도 문제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며, 올해 의장국인 한국도 조정을 단념했다고 함.

- <“日, 집단자위권 행사범위에 선박 강제조사 추진”(10/16,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16일 3차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해 검사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함.
 -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왔음.
 -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난 3일 미·일 외교 국방장관회담(2+2)에서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음.

- <“한국-러시아,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 협상 재개”(10/18, 미국의소리)
 -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은 16일 '파이낸셜 타임스'인터뷰에서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말했음.
 - 신문에 따르면, 노박 장관은 두 나라 모두 가스관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가 공급 규모와 가격, 가스관 통로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설명했다.
 - 한편, 남·북·러 가스관은 지난 2008년 합의된 바 있으나 가스 공급가격과 가스관의 북한통과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현재까지 별 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북해함대 사상 최대 미사일 실험 훈련”(10/18, 연합뉴스)
 - 중국 북해함대가 17일 서해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미사일 실험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중국 신문망 등이 보도했음.
 - 이 훈련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해군사령관 우성리가 직접 훈련을 참관했으며, 잠수함을 포함한 함정 100여척과 30여대의 비행기가 참가했고, 함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이 대규모로 발사됐음.



- 북해함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실전을 방불케 한 대규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행한 것은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의 성격도 짙은 것으로 분석됐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